

여성연구의 意義와 과제

金 榮 禎 (본원 원장)

I. 여성연구의 대두

여성연구는 文字 그대로 여성에 관한 眞理를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탐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여성연구와 여성학(Women's Studies)은 구별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同意語로 사용하고자 한다.

여성연구는 여성문제에 대한 새로운 視角과 깊은 認識에서 출발한다. 오랜 역사를 통해 여성은 남성과 더불어 생존해 왔으나 人間主體로서의 여성에 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家父長的 價値觀이 지배하고 知的 活動의 통제와 관료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여성연구의 학문적 접근이 불가능했음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고 하겠다.

西歐社會에서는 18세기말 프랑스혁명을 起點으로 하여 여성의 人間宣布가 점화되었다. 영국의 월스톤 크라프트(Mary Wollstonecraft)는 「女性の 權利 옹호」(*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en*, 1792)를 저술하여 처음으로 여성문제를 제기하였다. 19세기 중반에는 밀(J. S. Mill)에 의해 그리고 20세기 중반에는 베이어드(Mary Beard, 1876—1958)와 보봐르(Simone de Beauvoir) 등에 의해 체계적인 여성연구의 기초가 이루어 졌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대 말부터 주로 여자대학을 중심으로 여성에 관한 연

6 학술세미나「女性研究의 과제와 전망」

구와 저술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1958년 이화여자대학교는 「韓國女性文化論叢」을 펴냈고, 1972년에는 3권으로 구성된 「韓國女性史」를 간행하였다. 숙명여자대학교는 1962년 이래 연구논집 「亞細亞女性研究」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성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또한 효성여대에서도 「女性問題研究」 논총이 꾸준히 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부설연구소와 개별 교수들에 의한 연구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서히 본격적인 연구활동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었다.

여성연구는 여성운동(feminism)과 분리될 수 없다. 60년대 후반부터 民權運動, 學生運動, 反戰運動 등의 자극으로 일어난 歐美의 여성해방운동은 여성연구에 새로운 章을 열게 하였다. 미국에서는 1970년을 정점으로 하여 女性學이 1,000여 대학에 개설되고 2,300여명의 교수, 강사를 통해 5,000여종의 여성연구 강좌가 제공되고 있다. 더구나 유엔에 의해 制定, 宣布된 「국제 여성의 해」와 「여성발전 10년」의 설정은 西歐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여성문제의 중요성과 性差別主義 제거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차원에서의 여성운동과 學界를 중심으로 한 여성연구는 서로 긴밀한 유대와 연락망을 조성하였고, 국제기구와 財團들은 재정지원으로 연구사업을 적극 뒷받침하였다. 그 결과 質과 量에 있어 유례없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는 한국의 학계에도 새로운 變數로 작용하게 되었다. 1977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화여대에서 한국여성연구소의 설치와 아울러 교양과목의 일환으로 여성학 강좌가 개설되어 새로운 교재와 교수방법에 의한 교과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5년 후인 1982년에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여성학이 개설되었다. 현재 남녀공학을 포함한 20여개 대학에서 여성학관계 강좌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타 대학에서도 이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높아가고 있다.

「여성학」이 하나의 독립된 과목으로 대학 정규 교과과정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은 女性研究史뿐 아니라 高等教育史上 획기적인 변화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도외시되거나 저해받아 오던 여성연구가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찾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 大學內外에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 기존지식에 대한 여성시각적(women's perspective) 재조명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며 制度的・意識的 改革을 위한 정책자료가 생산될 것이다.

II. 연구목표와 接近方法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變化와 改革을 모색할 때에는 반드시 지식의 발전을 필요로 하며 그 지식의 원활한 적용에 기대를 걸게 된다. 여성연구 혹은 여성학은 바로 이같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식창출의 요청에 부응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그리고 연구목표에 적합한 방법과 틀을 마련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

여성연구의 목표에 관하여 그동안 여러종류의 회합에서 논의된 바를 종합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여성연구는 단순히 “여성에 관한 지식의 축적에 그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현실상황 속에서 사회 발전을 위한 비평적인 도구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구조의 不平等과 不均衡의 원인을 구명하고 人權的 차원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의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들의 주체적 自我認識을 개발하여 死藏된 능력을 활용하도록 하며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행동 또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力量을 키운다는 데에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때 학문적인 노력으로서의 여성연구는 여성해방운동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연구가 곧 현실문제의 해결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固定觀念과 偏見을 타파하는데 필요한 論理的 根據와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實踐的 要素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큰 意義를 부여할 수 있다. 여기에 한가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연구와 여성운동의 直結이나 또는 分離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異見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학은 원래 대학 캠퍼스에서 탄생했으나 점차 여성단체나 일반사회에서 제공하는 成人敎育과정에서 분리 확산되고 있다. 여성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집단적 활동이 필요하므로 각각의 교육, 경제배경을 초월하여 連帶意識을 가지고 참여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연구와 운동간에 유대를 가지고 그 성과에서 서로 배우며 相互作用을 지속하면서도 兩者가 독립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이것은 연구의

8 학술세미나「女性研究의 과제와 전망」

주제선택에 있어서는 운동측의 시호를 반영할 수 있으나 일단 연구에 착수한 후에는 운동과 분리하여 엄격한 客觀性과 科學性을 지녀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미국의 일부 여성학연구 동향에서 나타나는 이같은 주장은 우리나라에서도 방법론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素地를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과연 여성연구를 위한 固有의 방법이 있느냐는 문제이다. 현단계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方法論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연구는 연구자의 既存 學問領域에서 각기 종래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즉 사회학에서는 사회학적 방법에 의존하고 역사학에서는 역사학 특유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과연 이제까지 숨겨진 학문세계의 그늘진 곳을 파헤쳐야 할 여성연구의 道具로서 전통적인 사회과학 혹은 인문과학의 연구방법이 적합한 것일까, 가령 사회학적 조사방법론의 경우 그 자체가 남성위주로 만들어진 모델로서 여성에 관한 은폐된 측면을 파악하는 데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학의 학문적인 독자성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서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여성연구가 교과과정의 일부로 통합된 이상 학과목 또는 학과운영의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다. 여기에서 여성학을 독립된 학과로 운영하는 自律論과 다른 기존학과 내의 과목으로 개설하는 統合論이 제기된다. 미국의 사라·로렌스 대학의 경우 학부과정에 여성학과를 독립된 科로 두고 전공생을 받고 있으며 현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도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여성학관계 강좌를 既存學科에 散在開設하지 않고 한 科에 집합시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방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학강좌는 學問的(multidisciplinary) 혹은 學際間的(interdisciplinary) 성격을 지니며 수명의 교수들의 협동, 교체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한국학, 아메리카학 등 地域研究에서 시도되어지고 있는 방법과 흡사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접근은 학문의 지나친 分化에서 오는 斷切(compartmentalization)을 지양하고 넓고 총체적인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요컨대 여성연구를 위한 방법론의 개발은 계속 모색되어야 하며 분산된 연구의 성과를 하나의 체계속에 통일시키는 작업은 과제로 남아 있다.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인류학, 심리학, 법학, 신학, 역사학 등의 개별 분야에서 여

성역압의 구조와 요인을 분석하고 불평등, 불의를 설명하여야 한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여성문제 도출이 가능하며 이를 사회과학적으로 환원시켜 분석, 종합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여성연구의 접근방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여성문제 해결을 둘러싼 이론의 多樣性이다. 여성의 지위를 진단하고 문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제를 보는 사람의 눈과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제의 제시와 해결방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크게 나누어 볼 때 전통적인 여성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 보존하려는 保守主義 혹은 父權主義와 주어진 제도와 조건하에서 여성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개선하려는 穩健自由主義, 그리고 기존의 사회구조와 문화체제를 개혁하므로서 여성의 평등과 해방이 가능하다고 보는 急進主義 혹은 社會主義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다양한 이론과 주장사이에는 부단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연구를 촉진하는 동시에 연구자간의 意思疎通과 협력조성에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Ⅲ. 과제와 展望

여성연구는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점차 그 임무와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대학에서 선택교양과목으로 시작된 여성학은 근래 필수과목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여성학 碩士學位所持者의 수도 상당수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여성단체와 사회교육과정에 여성학이 포함됨으로써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도가 심화될 뿐 아니라 여성운동의 저변확대에도 크게 공헌한다고 보아 진다. 한편 1984년 가을에 여성학회가 발족되어 학문적 발전이 기대되고 한국여성개발원을 중심으로 여성발전과 政策開發을 위한 전국규모의 연구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여성연구에 대한 이와 같은 관심과 열의는 여성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이 연구의 성과와 그 적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여성연구는 이제 그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성연구는 우선 既存 가치체제와 고정관념에 도전하는데서부터 출발함으로써 낯익은 곳에 安住하고자 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저항을 사게 된다.

10 학술세미나「女性研究의 과제와 전망」

새로운 지식과 관점에 의해 종래의 信條와 思考方式은 비판받고 재편성을 요구당하게 됨으로 여성학에 대한 거부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여성학은 학문세계에서 인정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하루속히 지금의 위치로 부터 기존학문의 핵심부위로 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과정과 學制편성 등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겠거니와 여성학과 관련되는 사회과학의 서로 다른 분야간의 접근과 새로운 전망에 대해 교수진들이 자주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세미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배출되는 여성학 專攻者들의 연구활동과 學界進出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들의 학문적 성숙과 공헌도가 곧 여성학의 位置를 가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研究費이다. 어느 학문에서나 마찬가지로 연구활동의 기본조건은 연구비 확보에 있다. 각 대학 당국과 사회의 각종 財團들이 여성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연구기능을 적극지원 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자들은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연구의 成果가 대폭 현실문제의 해결에 연결되어야 한다. 학문의 성격에 따라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연구의 경우 것처럼 悠然할 수 없다. 여성자신들의 자아인식, 의식변화는 물론 소외계층과 雇傭上의 不平等과 가정내 성역할 등에 관한 연구결과가 곧바로 정규 교과내용과 非正規 사회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연구결과의 일부는 立法과정을 통해 政策化되어야 한다.

앞으로 여성학은 여러층의 여성집단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야 한다. 대학여성뿐만 아니라 농촌과 도시주변의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이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운동 혹은 변화에 있어서나 만족한 결과는 主體自身들의 문제의식과 의식변화가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 여성학은 결코 일부 지식층이나 대학여성의 專有物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성학의 출발이 바로 모든 계층의 여성에 대한 連帶意識이었다. 이것이 여성학으로 하여금 다른 기존학문과 구별되게 할 뿐아니라 기존 여성운동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視角과 힘을 구비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 특징을 부각시키고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상과 같은 과제와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판전은 여성연구 관계자들간의 상호신뢰와 유대감에 있다고 본다. 연구자들이 각기 여성문제에 대한 개념과

방법에 있어 異見을 가졌다 하더라도(참된 학문세계에서는 다양한 理論이 있고 論爭이 있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겠거니와) 서로 용납하고 共存하여야 한다. 이것은 여성연구활동의 存立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가 흔히 목적하는 배타성과 폐쇄성은 모든 학문분야에서 그러하거니와 특히 여성연구에 있어서는 최대의 禁物이라 하겠다. 여성연구자들의 최대 관심은 기존 연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對立과 경쟁 대신에 적극적 상호유대와 교류를 추구하는 일이어야 한다.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연구작업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성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성의 인간화를 통한 새 문화의 창조에 있다고 할진대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태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